

완도 보길도 '윤선도 문학관' 내달 문 연다

문학인들 머물 창작실 완공
어부사시사 테마 길도 조성

완도군이 조선 중기 시인이자 문신인 고산 윤선도(1587~1671년) 선생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보길도에 문학관을 건립하고, '테마 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완도군은 보길도 부항리 일원 부지 1494㎡에 총사업비 27억5600만원을 투입해 '윤선도 문학관'을 6월에, '윤선도 문학창작실'을 이달 말에 각각 완공할 예정이다.
문학관은 연면적 405㎡ 규모로 ▲고산과 보길도의 만남 ▲고산의 흔적을 따라 ▲흥취(興趣)의 미학 어부사시사 ▲고산의 고고한 삶 등 4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그래픽을 비롯해 태블릿, 피프팅슬라이드시



완도 보길도에 오는 6월 문을 여는 한옥 양식의 '윤선도 문학관'.

스템, 모형, 음향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마치 실제 윤선도의 생활 속으로 빠져들듯 같은 상황을 연출한다.
'윤선도 창작실'(연면적 105㎡)은 국내의 문학인들이 보길도에서 장기간 머물며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실로 만들었다. 군은 활발히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저명한 문학인들과 협의해 구체적인 창작실 활용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어부사시사 테마 길'을 조성하기 위해 용역 중이다.
테마 길은 윤선도 부용동 원림(명승 제

34호), 예송리 상록수림과 예송리 몽돌 해변(천연기념물 제40호), 보옥리 공룡알 해변, 보길도 격자봉 자락 7개의 등산코스 등 보길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고산 윤선도 선생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을 둘러볼 수 있는 코스로 조성될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문학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작실 위치 선정과 인테리어에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산 윤선도 선생은 정철, 박인로와 함께 '조선시대 3대 가인'(歌人)으로 불리며 연시조 '오우가'(五友歌)와 '어부사시사' 등 주옥같은 많은 문학작품을 남겼다. 특히 고산 선생이 아름다운 자연과 경치에 매료돼 13년간 머문 보길도는 사시사절 관광객과 문학탐방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숲속의 전남 만들기' 동참
해남군 2·3·4호 숲 조성

해남군이 전남도 역점 시책으로 추진중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3월에 해남읍 구교리 모퉁이 숲을 완성한 데 이어 최근 해남군 2호, 3호, 4호 숲을 조성했다.

해남읍 해리마을 청년회에서 해남 우슬체육공원내 풋살경기장 주변에 조성한 2호 숲인 해리동산은 왕철나무와 비자나무 등 교목 85주와 영산홍 등 관목류 1000여주를 식재했다.

3호 숲인 해남읍 옥동마을 수변공원은 해남읍 옥동마을 청년회 주관으로 연동저수지 주변에 매실나무와 개나리를 식재했다.

또 문내면 예라마을회에서 조성한 4호 숲인 문내예라 마을 숲은 마을 뒷산 생태공원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업의 하나로 단풍나무 등 교목류 91주를 심었다.

군은 기존에 조성된 작은 화단과 소공원 등을 숲 돌보미를 통해 관리를 해나가는 한편 올해 해남 대표 관광지인 대흥사 인근 군유지에 5호숲(삼산 구림리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숲 조성을 위해 수목 구입 및 객토 비용에 해당하는 500만원~100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지원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자투리땅이나 험터, 쓰레기 무단방치 공간 등을 활용해 작은 숲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숲을 기르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유지관리 협약을 체결하는 등 아름다운 해남을 만드는 데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무럭무럭 자라거라

최근 해남군 산이면 부흥마을 들녘에서 고무마 순 정식작업이 한창이다. 해남 600여농가는 1360ha에 호박고구마와 꿀고구마를 재배해 246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해남군 제공>

진도군 국고지원 사업 16건 1586억원 건의

'세월호 특별법' 근거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비확보 시동

진도군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진도군은 지난 8일 군청에서 이동진 군수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 진도군 범국민대책위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사고 국고지원 건의사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 국비 지원이 절실한 지역 주요 건의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군은 올해 '세월호' 참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와 추모사업 등을 위해 국고지원 사업으로 모두 16건(1586억원 규모)을 건의했다. 군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월 제정됨에 따라 법 시행령 제22조(안산시 및 진도군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에 근거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고 건의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농·수·특산물

집하 가공시설 건립(60억원) ▲대도시 진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50억원) ▲조도 주민 생활지원사업(96억원) ▲진도 이미지 개선사업(20억원) ▲명량대첩 관광지 활성화 사업(100억원) ▲해상 안전사고 예방훈련시설 설치(500억원)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이다.

특별법 제22조에는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안산시 및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는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해남군 벼 공동육묘장 '일거양득'

12개소 설치 운영...농가 일손 돕고 고품질 벼 생산

해남군이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으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다. 점차 노령화 되가는 농가의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규격화된 고품질 모 생산으로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 지역 귀장 품종이 육묘되고 생산됨으로써 벼 품종 단일화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관내에서 모두 12개소(6919㎡)의 공동 육묘장(사진)이 운영돼 연간 57만 개의 묘판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해남군 전체 벼 재배면적 9% 가량인 1902ha 분량이다.

이와 함께 군은 2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벼 육묘용 비가림 시설 5개소도 지원한다.

공동 육묘장에서 생산된 어린 묘는 비가림 시설로 옮겨져 튼튼한 묘로 키우게 된다. 공동 육묘장과 비가림 시설의 연계로 작업장 활용도를 높여 건전도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관수와 차광, 보온을 위한 자동

화 시설을 갖추고 일정한 조건에서 육묘를 생산하기 때문에 자가생산 육묘보다 생육 상태가 양호하고 병충해에 강해 농가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벼 농사 과정 중 가장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육묘를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매년 공동 육묘장 시설 2~3개소를 지원, 각 농가에 안정적인 공급함으로써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올해 도 산이농업을 비롯해 2개소에 1320㎡를 새롭게 지원, 올 하반기 준공하게 되면 내년부터 3만개의 묘판을 생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해남군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 기준 2만973ha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완도여중 고승덕 변호사 초청 특강

완도여자중학교(교장 왕명석)는 최근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고승덕 변호사를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다. <사진>

'꿈으로 돌파하라, 청소년을 위한 ABCD 성공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특강에서 고 변호사는 완도여중 전교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신이 직접 겪은 학창시절 학습 경험과 공부법을 전파했다.

이번 강연은 사전에 활용한 영어 공부법과 난이도가 다른 문제풀이의 반복을 강조한 수학 공부법 등 청소년이 궁금해하는 과목별 공부 방법을 다뤄 학생과 학부모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한편 고 변호사는 1978년 사법시험 합



격, 1979년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 합격 등 3개 고시를 모두 합격한 독특한 이력으로 유명하며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바 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상무 Biz Center

즉시입주가 가능 임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쾌적한 업무환경과 여유로운 주차.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 관리비,
정직한 공용면적 적용으로
입주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하겠습니다.

건물구분	관장업종	면적
1층	편의점, 공인중개사사무실	잔여 128㎡
2층	사무실	잔여 1201㎡
3층	사무실	1629㎡
4층	사무실	1267㎡
5층	사무실	1400㎡
6층	사무실	임대완료
7층	사무실	1400㎡
8층	사무실	1383㎡
9층	사무실	1367㎡
10층	사무실	1342㎡
11층	사무실	1307㎡
12층	사무실	임대완료
13층	사무실	임대완료
14층	사무실	잔여 111㎡

* 임대료 3.3㎡당 25,000원(4층 27,000원) 관리비 3.3㎡당 9,000원

상무비즈센터 (구 남영비즈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로 103 (치평동 1210-4)

임대관리 010-7570-7525
관리실 : 062)381-5551 FAX : 062)384-5551

수완 현진에버빌 임대

▶ 광산구 수완동 933번지 1층(53평)
정남향 / 초중고인접 / 즉시입주가

◆ 보1억5000만 / 월100만
◆ 전세 4억8000만원

분양권 매매

▶ 서구 농성동 골든힐스타워 12.5평
광주 서구 농성동 417-18번지 12.5평
422세대 /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 6월초 입주예정

◆ 분양가 7150만원
◆ 매매가 5500만원(일시불 완납)

월산동 빌라매매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4층
20평 / 정남향 / 신축 내부개끗 / 주차시설 / 방2 거실1개

◆ 보500 / 월43만 안고가
◆ 대출 4900만원
◆ 매매 9500만원

오피스텔(임대/매매)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15평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15평
사무용 적합 / 내부개끗 / 즉시입주가

◆ 임대 보300만 / 월25만
◆ 매매 3500만원

674 - 2006